

## 2020년 1월 26일 “(성경의 큰 숲 보기 23) 이사야(1) – 들어라! 오너라!”(사 1:2-20)

### <도입>

오늘은 1-39 장(제 1 이사야서)을, 다음 시간에는 40-66 장(제 2, 제 3 이사야서)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웃시야-요함-아하스-히즈기야, 네 왕의 시대에 걸쳐 사역했으며 초기에는 정치에도 관여했습니다

### [1] 심판의 배경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B.C.722) 앗시리아 제국은 그 다음 남 유다를 공격했습니다(B.C. 701). 이 위기 속에서 남 유다 지도자들은 앗수르, 이집트, 바벨론 같은 나라와 동맹을 맺기를 주장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내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야는 제 1 이사야서에서 자기 민족과 더불어 열방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 역사 속 모든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쳐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날에도 영원한 제국이란 없으며 모든 사상과 이념, 궤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생각들은 타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할 때 마지막 심판과 이 땅에서의 심판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흰 보좌 심판(계 20:11-15)이란 인생과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생명과 사망의 마지막 최종 결정을 의미합니다. 최종심판이 아닌 땅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심판들은 엄격하지만, 정화와 새출발을 위한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온 세계 민족을 창조하셨고 그들에 대한 심판도 주관하십니다. 창조주의 권세는 심판주의 권세까지 포함해야 온전해집니다.

이사야서 뿐 아니라 모든 선지서는 시작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많은 비중으로 다루다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늘어납니다. 심판의 과정 후에 주어지는 회복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 [2] 창조와 심판

심판을 이해하려면 창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 1:2** 창조 전 '어둠과 흑암과 공허'로 부터 창조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빛/어둠(낮/밤)이 생깁니다. 또한 무질서한 혼돈의 거대한 물이 나뉘므로써 질서의 상태, 즉, 하늘과 땅의 구별, 그리고 하늘과 땅을 적절한 피조물로 채우심으로써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창 1 장: 무 -> 유의 창조 개념이 적음).

창조란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무엇일까요? 역창조의 속성을 갖습니다. 즉, 질서에서 무질서로, 조화로부터 깨어짐으로, 선이 아닌 악이 드러남으로 그 파멸의 종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과정에는 이러한 역창조의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북 이스라엘이 앗시리아라는 도구로 인해 심판 받을 때 땅과 삶이 훼손되며 관계와 공동체와 정체성까지 다 깨졌습니다 -> 역창조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앗시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 또한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깨고, 선을 이루지 못하고, 욕망만 채우려 하니 이들 또한 창조의 순방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라는 도구에 의해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의 표현: 34:9~11(읽음) '에돔을 창조 것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 심판의 기본 개념 창조의 불합당한 결과에 대하여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타락 후 창조의 순방향으로 들어오도록 새로운 출발(새 창조)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 심판은 멸망과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 전, 흑암과 어둠과 공허를 맛봄으로써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지를 자각하게 하고 인간 안에 부여된 복과 섬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들어라(1:2), 오라(1:18)**

‘들어라’,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복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창조의 축복에 관한 비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먼저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다양한 죄성의 이유로 말미암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격적인 방법으로서 죄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회복을 가져오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귀가 열려야만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 사건이 6 장 이사야에게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스랍들(천사)을 목도하고 **6:5** ‘여호와를 보았다’ 말하며, **6: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의 영적 사건은 누구에게나 허락됩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18 절**.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함께 논의하고 이 죄의 현실을 결정짓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19 절** “...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때부터 사람에게 주셨던 에덴의 아름다운 축복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맺음>**

요약: 심판은 하나님의 역창조의 사건이며,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가는 일은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새 일을 말씀하고 행하십니다. 이 새 일에 관한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성격에 관하여 위를 참조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나와 사회와 국가를 볼 때 이런 역창조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지난 주에 이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더 깊이 언급했습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돌아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